

중학생의 성별, 수줍음, 자기조절의 상호작용이 또래 괴롭힘 피해에 미치는 영향*

설 경 옥[†] 경 예 나 지 영 진
이화여자대학교

본 연구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또래 괴롭힘의 피해 청소년들의 개인내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성별을 포함하여 이들의 성격적 특질인 수줍음 그리고 자기조절의 상호작용이 또래 괴롭힘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했다. 또래 괴롭힘 피해는 선행연구에 따라 외현적 괴롭힘과 관계적 괴롭힘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진입하며 또래 괴롭힘이 급증하는 시기인 중학교 1학년 305명을 대상으로 수줍음 수준, 자기조절 수준, 외현적 및 관계적 괴롭힘 피해 경험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성별, 수줍음, 자기조절의 삼원상호작용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현적 괴롭힘 피해에서는 성별과 수줍음 수준, 그리고 자기조절 수준 간의 삼원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남자 청소년은 수줍음 수준이 높고, 자기조절 수준이 낮은 경우 외현적 괴롭힘 피해가 유의하게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여자 청소년은 이와 반대로 수줍음 수준이 낮고 자기조절 수준이 낮은 경우 외현적 괴롭힘 피해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반면 관계적 괴롭힘 피해에서는 성별과 수줍음 수준, 그리고 자기조절 수준 간의 삼원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 결과의 의의와 함의를 논의에 포함했다.

주요어 : 수줍음, 자기조절, 또래 괴롭힘 피해, 청소년, 성차

* 본 연구는 지영진의 2013년도 석사학위 논문에서 사용한 자료를 재분석하여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설경옥,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E-mail: koseol@ewha.ac.kr

청소년기는 아동기 가족 중심의 사회적 관계망이 또래 관계로 범위가 확장되고 또래 집단에서의 소속의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이다(Osterman, 2000). 만족스럽고 긍정적인 또래 관계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지의 원천이 되지만, 부정적인 또래 관계는 청소년들의 우울과 불안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일으키는 동시에, 이 시기에 중요한 발달과업인 사회적 기술의 발달을 방해하여 청소년기 뿐 아니라 이후 성인기의 대인관계 능력 및 적응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구본용, 김택호, 김인규, 1999; 김진희, 2008). 특히 학교폭력과 같은 또래 괴롭힘의 심리적 피해는 학교 현장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그 심각성이 증가되고 있다(Srabstein & Leventhal, 2010). 또래 괴롭힘은 또래 집단 내의 개인, 혹은 집단에 의한 반복되고 지속되는 상처와 고통을 주는 의도적 행동으로 정의되며, 폭행과 구타 등의 신체적 폭력, 욕이나 조롱과 같은 언어적 공격의 직접적 괴롭힘과 나쁜 소문 퍼뜨리기, 고립시키기, 따돌리기와 같은 관계적 괴롭힘이 포함된다(Crick & Bigbee, 1998). 또래 괴롭힘 피해와 관련하여 개인내적 변인, 가족변인 그리고 학교 환경 변인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괴롭힘 피해에 취약한 개인적 요인으로 열등 의식, 낮은 자존감, 분노나 공격성 등이, 가족 변인으로는 가정폭력, 가족결손, 부모의 양육 태도 등이, 그 외 학교 환경 변인으로는 교사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폭력 피해, 친구 요인 등이 연구되었다(김혜원, 이해경, 2000; 박종효, 2005; 최운선, 2005). 또래 괴롭힘을 보다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변인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개인내적, 가족, 환경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Hong & Espelage, 2012; Lynch & Cicchetti,

2002)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Yang & McLoyd, 2015). 또래 집단의 사회문화적 규범은 청소년의 행동과 또래 수용 간 관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으로서(Chang, 2004) 청소년의 개인내적 특성의 또래 수용 혹은 거부 역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성별은 아동, 청소년의 발달에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사회구조적 변인으로서 발달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은 각각에게 주어진 도식들을 학습하게 된다(Bem, 1993).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또래 괴롭힘 양상에 관한 이해를 보다 높이기 위해 청소년의 개인내적 특성인 수줍음과 자기조절 수준이 성별에 따라 또래 괴롭힘 피해에 갖는 함의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연구하고자 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진입하며 또래 괴롭힘이 급증하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Rios-Ellis, Bellamy, & Shoji, 2000) 수줍음이라는 개인내적 변인을 자기조절 수준에 따라 조절된 수줍음과 조절되지 않은 수줍음으로 개념화하여 연구한 선행연구와(Xu, Farver, Chang, Zhang, Yu, 2007) 성역할 이론(Bem, 1993)을 근거로 성별, 수줍음 그리고 자기조절의 삼원상호작용이 또래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수줍음과 또래 괴롭힘 피해

수줍음은 새로운 사회적 상황에서 과도하게 조심스러워 하고 사회적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타인을 과도하게 의식하여 불편감을 느끼는 개인내적 성격 특질이다(Rubin, Coplan, & Bowker, 2009). 수줍음은 안정적인고 지속적인 성격 특질로서 생애 초기부터 자극에 대한 반응과 사회적 행동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나타

나는데(Bohlin & Hagekull, 2009; Kagan, Reznick, & Snidman, 1987) 수줍음이 높은 사람은 알고 지내던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거나 낯선 사람을 대면했을 때 정서적으로는 긴장 및 불편감을 느끼며, 인지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 지나친 걱정을 하고, 행동적으로는 말수가 적어지는 등 위축된 모습을 보인다(Cheek & Kransnoperova, 1999). 수줍음은 아동의 외로움, 불안,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 그리고 또래 거부, 괴롭힘과 같은 또래 문제를 예측하는 중요변인임이 다수의 종단 및 횡단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송경희, 송주현, 백지현, 이승연, 2009; Coplan, Rose-Krasnor, Weeks, & Kingsbury, 2013; Chen & Tse, 2008; Gazelle & Rudolph, 2004). 그러나 수줍음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영, 유아기나 초기 아동기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 국외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기에도 수줍음은 매우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또래 괴롭힘, 거부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Liu et al., 2014; Wang, Duong, Schwartz, Chang, & Luo, 2014). 또래 관계의 중요성이 급증하고 또래 관계에서의 유능성에 대한 기대가 더욱 증가하는 청소년기에 수줍은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 클 수 있지만, 청소년들의 수줍음과 또래 관계 어려움의 상관성에 대한 기제를 밝히는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Bowker, Rubin, & Coplan, 2012; Coplan et al., 2013).

국내 학교폭력 연구 자료에서 피해자가 생각하는 학교폭력 피해 이유로 수줍음의 성격적 특질과 관련 있는 ‘만만해 보여서’와 ‘내가 소심해서’가 매년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2). 실제로 피해 청소년들의 자기보고나(Coplan et al., 2013), 또래들이 피해 청소년에 대해 관찰하여 보고한 자료에

서도 수줍은 청소년이 집단 내 거부 및 괴롭힘의 더 빈번한 표적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2; Chen & Tse, 2008). 수줍음이 높은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미성숙하고 무능하다고 여겨지고 공격을 받아도 맞대응하지 않을 위협적이지 않은 대상으로 비추어져(Rubin, Wojslawowicz, Rose-Krasnor, Booth-LaForce, & Burgess, 2006; Rubin et al., 2009) 또래들의 괴롭힘의 표적이 되는 ‘만만한 상대’가 되기 쉽다(Rubin, Burgess, & Coplan, 2002). 특히 담임교사의 영향력이 적어지고, 아동기 형성된 힘의 위계가 심화되는 청소년기에는 수줍음과 또래 괴롭힘 피해의 상관성이 아동기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송민경, 2014).

수줍은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두 또래 괴롭힘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수줍음은 또 다른 개인내적 변인인 자기조절 수준에 따라 행동으로 표현되는 방식이 다르다(Eisenberg, Shepard, Fabes, Murphy, & Guthrie, 1998). 자기조절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장기적 목표를 위해 선별된 과제에 집중하며, 외부 자극에 대해서 스스로 행동, 인지, 정서적인 활동의 강도, 빈도 등을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사회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인내적 변인이다(조혜진, 권석만, 2011; 하수경, 2014; Kopp, 1982). Xu 등(2007)은 이러한 자기조절 수준에 따라 수줍음을 “조절된 수줍음(regulated shyness)”과 “불안한 수줍음(anxious shyness)”으로 구분하였다. 조절된 수줍음이 비주장적이고 나서지 않는 행동적 특징이 있다면, 불안한 수줍음은 불안하고 회피적인 행동적 특징이 있다. 조절된 수줍음의 아동과 청소년은 낯선 상황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수줍음으로 인해 과잉활성화

될 수 있는 불안이나 평가에 대한 공포감을 잘 조절하여 위협감을 덜 느낀다. 그렇다고 해서 수줍음이 낮은 청소년들과 같이 사회적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아니나, 조절된 수줍음의 청소년들은 비주장적이고 조용하지만 평정심을 잃지 않고 또래들에게 다가가려는 행동을 하여 또래집단에 속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이들은 또래들로부터 배척이나 괴롭힘을 덜 당하게 된다(Leary & Buckley, 2000; Xu et al., 2007). 따라서 조절된 수줍음의 청소년들은 또래에게 부정적 평가를 덜 받으며 비교적 성공적인 또래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Asendorpf, 1990; Xu et al., 2007). 반면, 불안한 수줍음이 높은 청소년들은 낮은 상황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수줍음으로 인해 과잉활성화 될 수 있는 불안이나 평가에 대한 공포감을 잘 조절하지 못해 또래 집단에서 불안해하며 위축되어 있고 사회적 접촉을 피하는 경향성을 보인다(Gazelle et al., 2005).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 감정에 압도되기 쉬운 불안한 수줍음이 높은 청소년들은 강도 높은 불안과 위축된 행동을 보이며, 사회적 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또래로부터 배척당하거나 거부당하기 쉬운 대상으로 인식된다(Asendorpf, 1990; Xu et al., 2007). 나아가 이들은 빈번한 또래거부를 경험하고, 높은 수준의 외로움과 사회불안을 호소한다(Xu et al., 2007).

수줍음과 또래 괴롭힘 피해의 성차

수줍음과 같은 개인차 변인의 사회적 적응력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양문화에서는 동양문화

에 비해 수줍음을 보다 더 병리적이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수줍음과 사회적 적응의 부적 관계가 동양보다는 서양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Chen & Tse, 2008). 전통적으로 동양문화권에서는 수줍음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동양문화권에서도 조절되지 않은 불안한 수줍음이 아닌 조절된 수줍음일 때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Xu et al., 2007). Xu와 동료들의 미국의 동양계 아동, 중국 본토 아동, 청소년 그리고 한국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연구한 결과 또래와 교사가 보고한 아동의 조절된 수줍음과 불안한 수줍음은 서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고, 아동과 청소년의 조절된 수줍음은 또래들의 선호와는 정적으로, 외로움과는 부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반면 불안한 수줍음은 또래들의 선호와는 부적으로, 외로움 및 대인관계 걱정과는 정적으로 상관이 있었다(Xu, Farver, Yu, & Zhang, 2009; Xu, Farver, & Shin, 2014; Xu & Krieg, 2014). 이는 자기표현 및 주장성이 강조되는 서양문화권에서 수줍음이 주로 부정적 개념으로 연구되었던 것과 달리, 집단 내 융화를 강조하는 동양문화권에서는 조절된 수줍음이 집단 내의 사회적 조화를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으로 여겨져 또래들에게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Coplan, Zheng, Weeks, & Chen, 2012; Wu, 1996; Xu et al., 2009). 국내에서는 취학 전 유아의 수줍음과 사회적 유능성 간의 부적 관계를 자기조절 능력이 조절함을 발견한 연구가 있었지만(권연희, 2014), 청소년의 자기조절 수준에 따른 수줍음과 또래 관계 간 연관성을 밝힌 연구는 아직 없다.

수줍음과 같은 성격특성은 문화차 뿐 아니라 성별에 따라 그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성역할이론에 따르면(Bem, 1993)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각 성에 기대되는 역할과 활동, 그리고 성격특성이 존재 하고 남아와 여아는 발달과정에서 각자의 성별에 기대된 성역할에 대한 규범과 도식을 학습하게 된다. 특별히 아동, 청소년기 때의 성규범을 위배하는 행동은 또래 집단에서 사회적 배척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Rudman & Fairchild, 2004). 수줍음 자체의 성차에 관한 연구 결과는 혼재한다. 학령기 전 아동 연구에서는 대개 성차가 드러나지 않으나 동, 서양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연구에 의하면 여아가 남아보다 더 수줍은 것으로 나타났다(Chang, 2004; Crozier, 1995; Lemerise, 1997; Prakash & Coplan, 2007). 이러한 결과는 수줍음이 여성의 특성으로는 보다 용인되지만 남성의 특성으로는 더 바람직하지 않게 여겨지는 성 고정관념 이론(Deaux & Kite, 1993; Prentice & Carranza, 2002)에 따른 사회화 학습과정이 수줍음의 성차에 기여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면 한 종단 연구에 의하면 3세 그리고 8세에는 수줍음의 성차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11세가 되어서는 여아의 수줍음 수준이 남아보다 높아지는 성차가 나타났다(Scarpa, Raine, Venables, & Mednick, 1995). 유사하게 아동의 수줍음, 과잉행동, 또래 관계의 성차에 관한 한 종단연구에 의하면 5세부터 9세까지 남자는 여아보다 수줍음이, 여아는 남아보다 과잉행동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사회적 압력에 의해 각자 성규범에 맞는 행동으로 순응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Rydell, Diamantopoulou, Thorell, & Bohlin, 2009). 수줍음의 성차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시기상

조일 수 있으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남녀의 수줍음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면 수줍음이 또래 관계에서 갖는 의의 역시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실제로 서양문화권에서 실시된 연구에 의하면, 수줍음이 높은 여아에 비해 수줍음이 높은 남아들이 더 부정적인 사회적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었다(Doey, Coplan, & Kingsbury, 2014; Rubin et al., 2002). 국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줍음과 또래 인기에 관한 연구에서 역시, 수줍음이 많은 남학생의 경우 이성과 또래에게 인기가 적었으나 여학생의 경우에는 수줍음이 또래 인기와 관련이 없었다(노혜숙, 이춘재, 2005). 중국 연구에서도 남학생의 수줍음이 여학생의 수줍음보다 또래 거부를 더 강력하게 예측했다(Chang, 2004). 더불어, Coplan 등(2012)은 캐나다와 중국의 아동을 대상으로 수줍은 아동, 혼자 놀기를 좋아하는 아동, 사회성이 좋은 아동의 시나리오를 각각 성별에 따라 제시하고 시나리오 속 아동과 친구가 되고 싶은 선호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캐나다 아동들은 수줍은 아동, 혼자 놀기를 좋아하는 아동, 사회성이 좋은 아동이 시나리오에 제시되었을 때 모두 그 시나리오 속 아동의 성별에 따라 친구가 되고 싶은 선호도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 아동은 수줍은 아동 시나리오가 제시되었을 때 그 시나리오 속 아동이 여아일 경우에는 친구가 되고 싶은 선호도를 더 표현하였고, 남아일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Coplan et al., 2012). 이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역할에 대한 기대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아와는 달리 남아의 수줍음은 또래들에게 더욱 부정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여져 수줍음과 또래수용과의 관계에 성차가 나타났을 수 있다(Gazelle & Ladd, 2003). 성역

할 기대는 문화권에 따라 더 엄격하고 혹은 덜 엄격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문화권에서는 성역할 기대가 서양보다 더욱 엄격하며(Zentner & Mitura, 2012), 이는 아동, 청소년도 예외로 적용되지 않아 수줍은 남아의 경우 수줍은 여아에 비해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더 겪을 것이라 예상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문화권에서 남자 청소년의 수줍음은 자기조절 수준과 상관없이 또래 괴롭힘 피해와 정적 관련이 있을 것이라 예상 가능하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수줍음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 기대가 더 높아 수줍음에 따라 또래 괴롭힘의 피해가 더 커지리라 예상되지는 않는다.

한편, 자기조절에 관한 사회적 규범에도 성차가 존재한다. Prentice와 Carranza(2002)에 의하면 미국 사회에서 여성에게는 '인내하는'과 같은 규범이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반면 남성에게는 '공격적인', '강렬한' 등의 특성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아동기에도 마찬가지로, 과잉행동과 같은 자기조절 실패 행동은 여아보다는 남아에게서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특성으로 또래들 사이에서 남아의 과잉행동은 더 규범적으로 여겨지는 반면 여아의 과잉행동은 비규범적으로 여겨진다(김광수, 박효진, 김은향, 2014). Rydell 등(2009)의 연구에서도 남아의 과잉행동보다 여아의 과잉행동이 또래 관계에서의 비선호도를 더 강하게 예측했다. 또한 수줍음 변인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국내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또래 사이에서 인기를 예측하는 요인 중 자기조절 변인이 여학생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김광수 등, 2014). 따라서 남아의 자기조절 실패보다 여아의 자기조절 실패가 또래 괴롭힘 피해와 더 큰 연관이 있을 것이

라고 추론할 수 있다.

정리하면, 과잉행동과 같은 자기조절 실패 행동과 수줍음 둘 다 성별에 상관없이 또래 문제를 예측하는 변인이나(오인수, 2008) 또래 문제를 예측하는 데 있어 자기조절 실패는 여아에게, 그리고 수줍음은 남아에게 더 설명력을 갖는 변인일 수 있다. 성역할 이론(Bem, 1993), 그리고 수줍음과 자기조절이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성차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또래 괴롭힘의 피해에 있어 남자 청소년에게는 수줍음의 주효과가, 여자 청소년에게는 자기조절의 주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측했다. 또한 Xu와 동료들(2007; 2014)의 불안한 수줍음과 조절된 수줍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남자 청소년의 경우 수줍음의 수준이 높고 자기조절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또래 괴롭힘의 피해를 입을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수줍음에 따라 또래 괴롭힘의 표적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않으리라 예상된다. Xu와 동료들의 조절된 수줍음과 불안한 수줍음과 또래 관계 연구에서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남자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자기조절 수준이 낮은 여자 청소년의 수줍음이 높은 경우 또래 괴롭힘의 피해를 입을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 예상 가능하다. 그러나 여성에게 있어 높은 자기조절 수준을 기대하고 수줍음을 용인하는 성별에 대한 기대가 더욱 엄격한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자기조절 수준이 낮는데 수줍음 수준도 낮지 않은 여자 청소년이 또래 괴롭힘의 피해에 표적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자기조절 수준에 따른 수줍음과 또래 괴롭힘 피해의 성차에 있어 또래 괴롭힘의 종류에 따라 그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다. 또래 괴롭

힘은 크게 외현적 괴롭힘과 관계적 괴롭힘으로 나뉘는데 많은 연구에서 이 둘은 개념적으로뿐 아니라 통계적으로 서로 다른 요인이 밝혀져 왔다(예: Crick & Grotpeter, 1995; Grotpeter & Crick, 1996). 외현적 괴롭힘 요인은 직접적인 신체적 공격뿐 아니라 조롱, 놀림, 헐박과 같은 언어적 공격을 가하는 것, 관계적 괴롭힘은 나쁜 소문 퍼뜨리기, 또래 집단으로부터 제외시키기와 같은 간접적이면서도 숨겨진 방법으로 관계적 측면을 공격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또래 괴롭힘의 종류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공격성의 성차 연구가 더욱 활발해졌고 Crick과 Grotpeter(1995)가 본격적으로 관계적 괴롭힘을 공격성의 또 다른 중요한 형태로 제시했을 때 남아는 외현적 공격성을, 여아는 관계적 공격성을 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arbone-Lopez, Esbensen, & Brick, 2010; Crick, 1997). 그러나 최근의 공격성 종류에 따른 성차의 메타분석에 따르면 외현적 공격성에는 측정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이 보이고, 관계적 공격성은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나타나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Archer, 2004). 따라서 남자 청소년들은 외현적 또래 괴롭힘의, 여자 청소년은 외현적 보다는 관계적 또래 괴롭힘의 피해를 더 많이 입게 될 것이라 예측된다. 하지만, 또래 괴롭힘에 대한 조절된 수줍음과 불안한 수줍음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외현적 괴롭힘과 관계적 괴롭힘 피해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거나 하나의 형태만 선택하여 수줍음의 종류에 따른 또래 괴롭힘 피해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예: Chen & Tse, 2008; Xu et al., 2014). 예외적으로 최근 미국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안한 수줍음과 또래 괴롭힘의 종류에 따른 성차를 중단 추적한 연구에

의하면 불안한 수줍음과 또래의 따돌림과 같은 관계적 괴롭힘 피해에서는 성차가 없었다. 그러나 신체적 괴롭힘 피해에 있어서는 남아의 경우 더 큰 상관성이 있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한 시점에서 불안한 수줍음과 신체적 괴롭힘 피해 간의 상관의 성차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Schell, Gazelle, & Faldowski, 2014). 따라서 수줍음과 자기조절의 상호작용이 남자 청소년들의 신체적 또래 괴롭힘 피해를 더욱 강하게 예측하리라 예상 가능하나 아직까지 성차, 수줍음 그리고 자기조절의 상호작용이 외현적 괴롭힘과 관계적 괴롭힘 피해에 각각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할 만한 선행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현적 괴롭힘과 관계적 괴롭힘 피해에 대해 동일한 가설로, 수줍음 그리고 자기조절이 또래 관계에 주는 영향에 대한 성차 연구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성별, 수줍음 그리고 자기조절의 상호작용이 외현적 또래 괴롭힘 피해를 예측할 것이다.

1-1. 남자 청소년의 경우, 자기조절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으나 수줍음의 주효과 그리고 수줍음과 자기조절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할 것이다. 즉, 남자 청소년은 수줍음 수준이 높을수록 외현적 또래 괴롭힘의 피해를 더 보고할 것이며 특히 자기조절 수준이 낮고 수줍음이 높을 경우에는 외현적 괴롭힘의 피해와 더 큰 상관성이 있을 것이다.

1-2. 여자 청소년의 경우, 수줍음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으나 자기조절의 주효과 그리고 수줍음과 자기조절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할 것이다. 즉, 여자 청소년은 자기조절 수

준이 낮을수록 외현적 또래 괴롭힘의 피해를 더 보고할 것이며 특히 자기조절 수준이 낮고 수줍은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외현적 괴롭힘의 피해와 더 큰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2. 성별, 수줍음 그리고 자기조절의 상호작용이 관계적 또래 괴롭힘 피해를 예측할 것이다.

1-1. 남자 청소년의 경우, 자기조절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으나 수줍음의 주효과 그리고 수줍음과 자기조절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할 것이다. 즉, 남자 청소년은 수줍음 수준이 높을수록 관계적 또래 괴롭힘의 피해를 더 보고할 것이며 특히 자기조절 수준이 낮고 수줍음이 높을 경우에는 관계적 괴롭힘의 피해와 더 큰 상관이 있을 것이다.

1-2. 여자 청소년의 경우, 수줍음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으나 자기조절의 주효과 그리고 수줍음과 자기조절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할 것이다. 즉, 여자 청소년은 자기조절 수준이 낮을수록 관계적 또래 괴롭힘의 피해를 더 보고할 것이며 특히 자기조절 수준이 낮고 수줍은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관계적 괴롭힘의 피해와 더 큰 상관이 있을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경기도 한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 34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성별을 표기하지 않은 1명과 불성실하게 응답한 12명의 자료를 제외한 333명을 최종대상으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 개 이상의 변인에서 ± 3 표준편

차를 넘는 응답자들을 극단치로 처리하여 이에 해당하는 28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30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중 남자는 156명(51.1%), 여자는 149명(48.9%)이었다.

측정도구

수줍음

대인관계 상황에서 청소년이 지각하는 수줍음을 측정하기 위해 정창윤(1997)이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만든 수줍음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31문항 총 2요인으로 사회접촉주저 요인 15문항과 의사표현 어려움 요인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4점 Likert 형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4= 항상 그렇다)로 평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사회접촉주저 요인 중 10문항(예: “나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말을 잘 하지 못 한다”)과 의사표현 어려움 요인 중 7문항(예: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조용히 있는 편이다”)을 사용하여 청소년들의 수줍음을 측정하였다. 정창윤(1997)의 연구에서 전체 수줍음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9였다.

자기조절

자기조절은 성격요인 중 하나인 성실성의 측면을 반영하며, 행동적으로는 충동 통제 및 부주의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Baumeister, Gailliot, DeWall, & Oaten, 2006; Roberts, Lejuez, Krueger, Richards, & Hill, 2014). Pope와 Bierman(1999)은 주의력 부족, 과잉행동으로 정서조절력을 측정하여 중단적으로 정서조절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또래 관계 문제를 더 많이 보임을 밝혔다. 이에 본 연구의 자기조절 척도

는 1997년 Goodman이 개발하고 2003년 안정숙, 전성균, 한준규, 노경선, Goodman이 표준화한 한국형 강점·난점 척도 SDQ-Kr(Korean version of the 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 중, 청소년의 자기보고식 SDQ의 과잉행동/부주의 5문항과(예: “나는 차분하지 않고, 오랫동안 가만히 있지 못하다”) Costa와 McCrae(1992)의 NEO-PI-R 240문항을 변안한 이경임(1995)의 설문지 중, 성실성 4문항으로(예: “나는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내 자신을 통제하고자 노력한다”) 구성하였다. 과잉행동/부주의 문항은 최근 6개월 동안 자신의 행동에 대해 3점 Likert형 척도(1= 전혀 아니다, 3= 분명히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있으며, 안정숙 등(2003)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0이었다. NEO-PI-R은 5점 Likert형 척도(1= 전혀 아니다, 5=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있으며, 안창규와 채준호(1997)의 연구에서 중학생 표본의 성실성 요인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였다. 전체 자기조절 척도는 과잉행동/부주의 척도와 성실성 척도의 각 총점을 표준화한 후 합산한 점수에 해당하며, 신뢰도(Cronbach's α)는 과잉행동/부주의는 .70, 성실성은 .83으로 나타났다.

또래 괴롭힘 피해

또래 괴롭힘의 피해는 또래 집단 내에서의 괴롭힘을 측정하기 위해 Crick과 Grotpeter(1996)가 제작한 사회 경험 질문지(Social Experience Questionnaire: SEQ)를 임지영(1997)이 한글로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 경험 질문지(SEQ)는 아동의 괴롭힘 피해를 측정하는 도구로, 외현적 괴롭힘, 관계적 괴롭힘, 그리고 또래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

부재의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외현적 괴롭힘 5문항(예: “아이들이 나를 밀거나 넘어뜨린다”)으로 외현적 또래 괴롭힘 피해를 측정하였고, 관계적 괴롭힘 4문항(예: “어떤 아이가 나에게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다른 아이들이 나를 싫어하게 한다”)으로 관계적 또래 괴롭힘 피해를 측정하였다. 또래 괴롭힘 피해 척도는 5점 Likert형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최보가와 임지영(1999)의 연구에서 초중생의 외현적 괴롭힘 피해와 관계적 괴롭힘 피해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83, .7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87, .85였다.

분석 방법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연구변인의 정상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하였다. 다음으로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사용하여 수줍음, 성별, 자기조절능력과 또래 괴롭힘 피해의 삼원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관계적 괴롭힘과 외현적 괴롭힘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Aiken과 West(1991)의 절차에 따라 예측변인으로 사용되는 모든 연속변수는 중앙화(centering)하여 분석하였다. 1단계에는 주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줍음, 성별, 자기조절능력을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는 각 변수들의 이원상호작용항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는 삼원상호작용항인 수줍음 \times 성별 \times 자기조절능력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전체 모형이 유의하고, 주 효과 및 상호작용효과도 유의($p < .05$)한 것들만 해석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를 남녀를 구분하여 표 1에 제시했다. 또한 수줍음과 자기조절, 또래 괴롭힘 피해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평균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또래 괴롭힘 피해의 하위척도인 관계적 괴롭힘 피해에서만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t = -2.08, p < .05$). 연구 변인들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통해 주요변인 간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또한 표 1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수줍음, 자기조절, 또래 괴롭힘 피해 세 변인 간에 서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

적으로, 남녀 모두에게서 수줍음은 자기조절과 부적 상관(남 $r = -.31$, 여 $r = -.28$), 관계적 괴롭힘 피해와는 정적 상관(남 $r = .40$, 여 $r = .33$)이 유의했다. 수줍음과 외현적 괴롭힘 피해는 남자 청소년에게서만 정적 상관이 유의했고($r = .29$) 자기조절은 외현적 괴롭힘(남 $r = -.26$, 여 $r = -.25$)과 관계적 괴롭힘 피해(남 $r = -.23$, 여 $r = -.26$)와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가졌다.

외현적 괴롭힘 피해

표 2에서 제시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1단계에서 예측변인의 효과를 살펴보면, 외현적 괴롭힘 피해에 대한 수줍음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beta = .09, p = ns$), 자기조절이 낮을수록 외현적 괴롭힘 피해가 더 높았다($\beta = -.23, p < .001$). 이원상호작용항을 투입한 2단계에서는 설명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Delta R^2 = .02, ns$). 마지막 3단계에서 설명량의 증가는 유의하였고($\Delta R^2 = .03, p < .01$), 수줍음 \times 자기조절 \times 성별의 삼원상호작용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7, p < .01$).

표 1. 주요변인의 상관계수 및 기술통계 결과($N = 305$)

변인		1	2	3	4
1. 수줍음		1	-.28**	.01	.33**
2. 자기조절		-.31**	1	-.25**	-.26**
3. 외현적 괴롭힘 피해		.29**	-.26**	1	.36**
4. 관계적 괴롭힘 피해		.40**	-.23**	.56**	1
평균	남	2.12	-.03	1.37	1.49
	여	2.18	.04	1.24	1.67
표준편차	남	.49	1.59	.60	.73
	여	.52	1.86	.54	.79

주. 대각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은 남자 청소년, 위쪽은 여자 청소년의 상관계수임, * $p < .05$, ** $p < .01$,

표 2. 수줍음, 성별, 자기조절과 외현적 괴롭힘 피해에 대한 중다회귀분석(N=305)

단계	변인	B	SE B	β	R ²	ΔR^2	ΔF
1	수줍음	.05	.03	.09	.08	.08	8.96***
	자기조절	-.13	.03	-.23***			
	성별	-.13	.06	-.11*			
2	수줍음	.14	.05	.24**	.11	.02	2.47
	자기조절	-.12	.05	-.21*			
	성별	-.13	.06	-.11*			
	수줍음×자기조절	.01	.03	.02			
	수줍음×성별	-.18	.07	-.22**			
	자기조절×성별	-.02	.07	-.02			
3	수줍음	.15	.05	.27**	.13	.03	8.70**
	자기조절	-.16	.05	-.27**			
	성별	-.07	.07	-.06			
	수줍음×자기조절	-.10	.05	-.19*			
	수줍음×성별	-.21	.07	-.26**			
	자기조절×성별	.01	.07	.01			
	수줍음×자기조절×성별	.19	.06	.27**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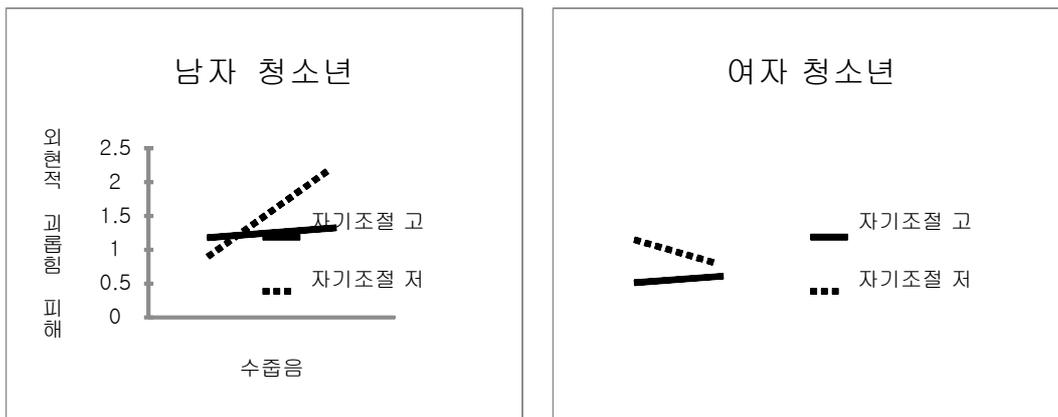


그림 1. 수줍음, 성별, 자기조절과 외현적 괴롭힘 피해의 삼원상호작용 효과 양상

3단계에서 확인한 삼원상호작용이 외현적 괴롭힘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각 변인의 표준점수 평균 0을 기준으로 +1을 높은 수준, -1을 낮은 수준으로 설정해 단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자기조절 × 수줍음의 효과가 유의했고, 여자 청소년 역시 자기조절 × 수줍음의 효과가 유의하였지만 그 방향은 연구가설대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자기조절이 낮은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수줍음이 높은 남자 청소년이 수줍음이 낮은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외현적 괴롭힘 피해를 보고했다($t=4.10, p<.001$). 반면 자기조절이 낮은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수줍음이 낮은 여자 청소년이 수줍음이 높은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외현적 괴롭힘 피해를 보고했다($t=-2.08, p<.05$). 자기조절이 높은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수줍음 수준에 따른 괴롭힘 피해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남 $t=.59, ns$, 여 $t=.59, ns$).

관계적 괴롭힘 피해

표 3에서 제시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1단계에서 예측변인의 효과를 살펴보면, 관계적 괴롭힘 피해에 대한 수줍음과 자기조절, 그리고 성별의 효과가 각각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줍음이 높을수록($\beta=.32, p<.001$), 자기조절이 낮을수록($\beta=-.15, p<.01$) 관계적 괴롭힘 피해

표 3. 수줍음, 성별, 자기조절과 관계적 괴롭힘 피해에 대한 중다회귀분석($N = 305$)

단계	변인	B	SE B	β	R^2	ΔR^2	ΔF
1	수줍음	.24	.04	.32***	.17	.17	19.70***
	자기조절	-.12	.04	-.15**			
	성별	.16	.08	.11*			
2	수줍음	.29	.06	.38***	.18	.01	1.40
	자기조절	-.12	.07	-.15			
	성별	.16	.08	.10			
	수줍음×자기조절	-.07	.04	-.10			
	수줍음×성별	-.06	.09	-.06			
	자기조절×성별	.01	.09	.01			
3	수줍음	.29	.06	.38***	.18	.00	.29
	자기조절	-.12	.07	-.16			
	성별	.17	.09	.11*			
	수줍음×자기조절	-.10	.06	-.14			
	수줍음×성별	-.07	.09	-.06			
	자기조절×성별	.00	.09	.00			
	수줍음×자기조절×성별	.04	.08	.05			

* $p<.05$, ** $p<.01$, *** $p<.001$

가 더 높았다. 또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관계적 괴롭힘 피해를 더 많이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1, p<.05$). 이원상호작용항을 투입한 2단계에서는 설명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Delta R^2=.012, ns$). 마지막 3단계에서 설명량의 증가분은 유의하지 않았으며($\Delta R^2=.001, ns$), 수줍음 \times 자기조절 \times 성별의 삼원상호작용 역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05, ns$).

논 의

수줍음은 발달, 상담, 임상 심리학 영역 전반에 걸쳐 또래 괴롭힘 피해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개인내적 요인으로 밝혀져 왔다(김보경, 박성연, 안지영, 2010; Caspi, Elder, & Bem, 1988; Rubin, Bukowski, & Parker, 2006). 그러나 수줍음이 또래 괴롭힘 피해로 이어지는 기제를 밝히는 연구는 아직 많지 않고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하고자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또래 괴롭힘 피해와 관련 있는 청소년의 개인내적 변인인 수줍음이 자기조절의 수준에 따라서 구분되며, 수줍음과 또래 괴롭힘 피해의 관계에 성차가 관여한다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수줍음과 자기조절, 그리고 성차의 상호작용이 외현적 또래 괴롭힘 및 관계적 또래 괴롭힘 피해를 각각 어떻게 예측하는지 연구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1과 같이 수줍음과 외현적 또래 괴롭힘 피해와의 관계에서 자기조절과 성별의 상호작용에 대한 가설은 남녀 청소년에게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은 수줍음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자기조절 수준과 상관 없이 또래 괴롭힘의 피해를 덜 입었다. 그러

나 수줍음 수준이 높은 경우 자기조절 수준이 낮을수록 또래 괴롭힘의 피해를 더 많이 보고하였다. 이는 Xu와 동료들(2007; 2014)의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비록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절의 수준에 따라 수줍음 집단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수줍음과 자기조절의 상호작용 결과로 조절된 수줍음(높은 자기조절, 높은 수줍음) 보다 불안한 수줍음(낮은 자기조절, 높은 수줍음)이 외현적 또래 괴롭힘 피해에 더 취약한 경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여자 청소년은 자기조절이 높은 경우에는 수줍음의 높고 낮음과 또래 괴롭힘 피해 간의 관계는 없지만, 자기조절이 낮은 경우에는 수줍음이 낮을수록 또래 괴롭힘 피해를 더 많이 경험했다. 이는 여자 청소년들의 조절된 수줍음은 또래 괴롭힘 피해를 예측하지 않지만, 남자 청소년과는 반대로 낮은 자기조절, 낮은 수줍음이 외현적 또래 괴롭힘 피해를 예측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Olweus(1994)가 정의한 수동적(passive) 피해자, 도발적(provocative) 피해자의 정의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수동적 피해자는 불안하고 공격에 대응하지 않는 반면, 공격적/도발적 피해자는 과잉행동을 보이거나(Schwartz, Dodge, Pettit, & Bates, 1997) 기질 상 지나치게 활동적인 경우에 해당한다(Pellegrini & Bartini, 2000). 즉, 여자 청소년에게 차별하고 순종적인 특성을 요구하는 동양문화권에서는, 자기조절이 잘 되지 않고 수줍음이 낮은 여자 청소년들의 성격특성이 오히려 또래 집단에서 여자 청소년에게 기대되는 규준을 위반하는 도발로 여겨져 더 큰 괴롭힘 피해를 겪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아동을 대상으로 성별 규준 위반 행동을 평가하게 했을 때, 시끄럽고 거친 행동을 보이는 여자 청소년이 조용한 행동을 보

이는 남자 청소년들보다도 더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Blakemore(2003)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Rydell 등(2009)의 연구에서도 남녀 아동에서 과잉행동의 주효과와 수줍음과 과잉행동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는데, 과잉행동과 수줍음 수준이 둘 다 높은 경우 또래 관계에서의 비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이는 위축적인 동시에 산만하고 과잉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이 가장 또래 관계에 취약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특히 남아의 과잉행동보다 여아의 과잉행동이 또래 관계에서의 비선호도를 더 강하게 예측했다.

둘째, 가설 2와 달리 수줍음과 관계적 또래 괴롭힘 피해와의 관계에서 자기조절과 성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 결과 수줍음과 자기조절, 그리고 성별이 관계적 또래 괴롭힘 피해를 예측했으나 수줍음과 자기조절, 수줍음과 성별, 그리고 자기조절과 수줍음 간 이원상호작용과 세 변인의 삼원상호작용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즉, 관계적 또래 괴롭힘은 수줍음이 높을수록, 자기조절 수준이 낮을수록, 여자 청소년에게서 피해 경험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수줍음이 관계적 또래 괴롭힘 피해의 취약요인이고(Coplan et al., 2013), 낮은 자기조절 수준이 높은 관계적 또래 괴롭힘 피해와 관련 있다는 연구결과(Crick & Bigbee, 1998)와 일치한다. 또한,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에게서 관계적 또래 괴롭힘 피해가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선행연구(심희옥, 2007; Crick & Bigbee, 1998)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변인 간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았던, 즉 외현적 또래 괴롭힘과 관계적 또래 괴롭힘 피해를 예측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외현적 괴롭힘의 가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관계

적 괴롭힘의 가해자는 친한 친구일 경우가 많다(Crick et al., 2006; De Los Reyes & Prinstein, 2004). 또한 외현적 괴롭힘은 가시적이고, 가해자의 처벌이나 피해자의 신체 부상과 같이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즉, 외현적 괴롭힘은 관계적 괴롭힘에 비해 적발 시 비용이 더 크다. 이에 비해 관계적 괴롭힘은 미묘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으며 적발될 위험도 낮다(Rose, Swenson, & Waller, 2004). 따라서 가해자의 입장에서 비용이 편익보다 큰 외현적 괴롭힘의 경우, 눈에 띄는 자기조절 실패와 같은 요인에 더해 보다 복합적 요인에 근거해 피해자가 선정되는 반면 관계적 또래 괴롭힘은 보다 단순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외현적 또래 괴롭힘 피해를 예측하는 청소년의 개인내적 변인인 수줍음과 자기조절의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 수줍음은 국내외에서 또래 괴롭힘 피해의 취약요인으로 연구 되었지만(김보경 등 2010; Coplan et al., 2013; Rubin et al., 2002), 수줍음이 문화적 다양성에 따라 갖는 의미를 구분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Xu et al., 2007). 본 연구는 외현적 또래 괴롭힘 피해에 대한 수줍음의 수준과 자기조절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를 발견함으로써, 사회 내 조화를 중시하는 동양문화권의 또래 관계에서 수줍음이 자기조절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함의를 가짐을 증명했다. 즉, 본 연구는 서양에서 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온 수줍음이라는 개인내적 변인이 자기조절 수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의 조화를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 다르게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둘째, 본 연구는 수줍음과 자기조절의 상호작용이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성차를 발견하였다. 성역할 기대 차이로 인해 특히 동양문화권에서 수줍음이 성별에 따라서 또래들에게 더욱 다르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이에 대한 경험적 검증은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Doey et al., 2014). 본 연구는 수줍음이 높고 자기조절 수준이 낮은 남자 청소년, 수줍음이 낮고 자기조절 수준이 낮은 여자 청소년 집단이 외현적 또래 괴롭힘 피해에 취약함을 확인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요구되는 사회적 기대가 또래 집단 내 수용 수준을 결정함을 증명했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자기보고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교사 보고 및 또래 보고를 포함한 다중보고 자료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수줍음의 경우, 성별에 따른 자기보고의 편향이 나타날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수줍음이 보다 용인되는 여자 청소년들은 수줍음을 과잉보고 하는 반면 남자 청소년들은 수줍음을 과소보고 할 가능성이 있다(Doey et al., 2014), 특히 관계적 공격성의 성차에 관한 메타분석에 의하면 자기보고를 이용한 측정에서는 성차가 덜 드러났으며 관찰법이나 또래 평정법을 이용한 연구방법에서는 성차가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Archer, 2004).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행동 관찰 등 보다 다양한 자료로 본 연구 결과를 반복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수줍음과 자기조절의 수준에 따라서 수줍음의 종류를 구분하고 조절된 수줍음/불안한 수줍음을 직접 측정하지는 않았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조절된 수줍음/불안한 수줍음을 구분해서 관찰법이나 설문지를

이용해 가설을 검증하였는데(Xu et al., 2007; 2014), 이처럼 직접적으로 측정된 수줍음의 두 종류와 또래 괴롭힘 간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조절된 수줍음/불안한 수줍음이라는 두 구인의 기능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수줍음이나 자기조절력이 동양문화권의 또래 관계 내에서 어떻게 평가 받는지 탐색하였는데, 또래 괴롭힘이 발생하는 보다 구체적인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Chang(2004)은 또래 규준 이론에 근거하여, 개별 학급의 구성 및 분위기가 개인 행동에 대한 또래수용/거부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보았고, Gazelle(2006)의 연구에서는 수줍은 아동들이 부정 정서가 높은 학급 분위기에서 더 거부당하는 경향이 있었다. 후속연구에서는 미시적으로 사회적 행동이 평가 받는 맥락에 접근하여, 학급 성비 혹은 교사 태도와 같은 다른 변인들이 수줍음과 또래 괴롭힘 피해 간 관계에서 작용하는 영향력을 탐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줍음과 또래 괴롭힘 피해 간 관계가 발달 연령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 연령이 증가할수록 수줍음이 더 강하게 또래 문제를 예측하며(Rydell et al., 2009)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Blakemore, 2003)를 고려할 때, 아동기나 청소년 후기 등 보다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구분용, 김택호, 김인규 (1999). 청소년의 또래 관계: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36권. 한

- 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연구보고서.
- 권연희 (2014).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과 수줍음 및 의도적 통제 의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4, 215-235.
- 김광수, 박효진, 김은향 (2014). 인기아동의 성격 강점 분석. *초등상담연구*, 13(3), 331-347.
- 김보경, 박성연, 안지영 (2010). 수줍은 아동과 일반 아동의 친구관계 비교연구: 상호적 친구 유무, 사회적 행동특성 및 친구관계 의 질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7(4), 173-189.
- 김진희 (2008). 중학생의 또래 직접 피공격과 간접 피공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0(4), 77-89.
- 김혜원, 이해경 (2000). 집단괴롭힘 가해와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45-64.
- 노혜숙, 이춘재 (2005). 수줍음, 자기개념 및 또래인기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5(1), 88-89.
- 박중효 (2005). 또래 공격행동 및 피해행동에 대한 이해: 선행요인 탐색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8(1), 19-35.
- 송경희, 송주현, 백지현, 이승연 (2009). 남녀 중학생의 정서적, 인지적 특성,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괴롭힘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2), 1-22.
- 송민경 (2014). 학교 내 학생들 간의 권력관계와 학교폭력. *한국아동복지학*, 46, 172-204.
- 심희옥 (2007). 또래 괴롭힘과 외현과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횡단 및 종단연구. *한국생 활과학회지*, 16(6), 1107-1118.
- 안정숙, 전성균, 한준규, 노경선, Goodman, R. (2003). 한국어판 강점·난점 설문지 (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 개발. *신경심리의학*, 42(1), 141-147.
- 안창규, 채준호 (1997). NEO-PI-R의 한국표준화를 위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9(1), 443-473.
- 오인수 (2008). 초등학생의 학교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에 따른 심리적 요인. *초등교육연구*, 21(3), 91-110.
- 이경임 (1995). 한국인의 NEO-PI-R 요인 구조와 부적응 집단 프로파일. 부산대 박사학위 논문.
- 임지영 (1997).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창윤 (1997). 초등학교 아동의 수줍음과 자기존중감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혜진, 권석만 (2011). 자기조절과 정서가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4), 963-983.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2). 2011년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연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최보가, 임지영 (1999). 또래괴롭힘이 아동의 외로움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5), 111-121.
- 최운선 (2005). 학교폭력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10(2), 95-111.
- 하수경 (2014).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지지와 진로결정효능감의 관계에서 자기조절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6), 339-368.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Thousand Oaks, CA: Sage.
- Archer, J. (2004).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in real-world settings: A meta-analytic review.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8*, 291-322.
- Asendorpf, J. B. (1990). Beyond social withdrawal: Shyness, unsociability, and peer avoidance. *Human Development, 33*, 250-259.
- Baumeister, R. F., Gailliot, M., DeWall, C. N., & Oaten, M. (2006). Self-regulation and personality: How interventions increase regulatory success, and how depletion moderates the effects of traits on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74*, 1773-1802.
- Bem, S. L. (1993). *The lenses of gender: Transforming the debate on sexual inequality*. Yale University Press.
- Blakemore, J. E. O. (2003). Children's beliefs about violating gender norms: Boys shouldn't look like girls, and girls shouldn't act like boys. *Sex Roles, 48*, 411-419.
- Bohlin, G., & Hagekull, B. (2009). Socio-emotional development: from infancy to young adulthood.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50*, 592-601.
- Bowker, J., Rubin, K. H., & Coplan, R. J. (2012). Social withdrawal in adolescence. In R. J. R. Levesque (Ed.), *Encyclopedia of adolescence* (pp. 2817-2824). New York: Springer.
- Carbone-Lopez, K., Esbensen, F., & Brick, B. T. (2010). Correlates and consequences of peer victimization: Gender differences in direct and indirect forms of bullying.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8*, 332-350.
- Caspi, A., Elder, Jr. G. H., & Bem, D. J. (1988). Moving away from the world: Life-course patterns of shy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78*, 158-172.
- Chang, L. (2004). The role of classroom norms in contextualizing the relations of children's social behaviors to peer accept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40*, 691-702.
- Cheek, J. M., & Kransnoperova, E. N. (1999). *Varieties of shyness in adolescence and adulthood*. In L. A. Schmidt, & J. Schulkin (Eds.). *Extreme fear, shyness, and social phobia: origins, biological mechanisms, and clinical outcom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hen, X., & Tse, H. C. (2008). Social functioning and adjustment in Canadian-born children with Chinese and European backgrounds. *Developmental Psychology, 44*, 1184-1189.
- Coplan, R. J., Rose-Krasnor, L., Weeks, M., & Kingsbury, A. (2013). Alone is a crowd: Social motivations, social withdrawal, and socioemotional functioning in later child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49*, 861-875.
- Coplan, R. J., Zheng, S., Weeks, M., & Chen, X. (2012). Young children's perceptions of social withdrawal in China and Canada.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2*, 591-607.
- Costa, P. T., & McCrae, R. R. (1992).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NEO-PI-R) and NEO Five-Factor Inventory (NEO-FFI)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Crick, N. R. (1997). Engagement in gender normative versus nonnormative forms of aggression: Links to social - psychological

- 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3*, 610-617.
- Crick, N. R., & Bigbee, M. A. (1998). Relational and overt forms of peer victimization: A multi-informant approac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 337-347.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 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6). Children's treatment by peers: Victims of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6*, 367-380.
- Crick, N. R., Ostrov, J. M., Burr, J. E., Cullerton-Sen, C., Jansen-Yeh, E., & Ralston, P. (2006). A longitudinal study of relational and physical aggression in preschool.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7*, 254-268.
- Crozier, W. R. (1995). Shyness and self-esteem in middle childhood.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5*, 85-95.
- Deaux, K., & Kite, M. (1993). Gender stereotypes. In F. L. Denmark & M. A. Paludi (Eds.), *Psychology of women: A Handbook of issues* (pp. 107-139). Westport, CT: Greenwood.
- De Los Reyes, A., & Prinstein, M. J. (2004). Applying depression-distortion hypotheses to the assessment of peer victimization in adolesce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3*, 325-335.
- Doey, L., Coplan, R. J., & Kingsbury, M. (2014). Bashful boys and coy girls: A review of gender differences in childhood shyness. *Sex Roles*, *70*, 255-266.
- Eisenberg, N., Shepard, S. A., Fabes, R. A., Murphy, B. C., & Guthrie, I. K. (1998). Shyness and children's emotionality, regulation, and coping: Contemporaneous, longitudinal, and across context relations. *Child Development*, *69*, 767-790.
- Gazelle, H. (2006). Class climate moderates peer relations and emotional adjustment in children with an early history of anxious solitude: A child × environment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42*, 1179-1192.
- Gazelle, H., & Ladd, G. W. (2003). Anxious solitude and peer exclusion: A diathesis-stress model of internalizing trajectories in childhood. *Child Development*, *74*, 257-278.
- Gazelle, H., Putallaz, M., Li, Y., Grimes, C. L., Kupersmidt, J. B., & Coie, J. D. (2005). Anxious solitude across contexts: Girls' interactions with familiar and unfamiliar peers. *Child Development*, *76*, 227-246.
- Gazelle, H., & Rudolph, K. D. (2004). Moving toward and away from the world: Social approach and avoidance trajectories in anxious solitary youth. *Child Development*, *75*, 829-849.
- Goodman, R. (1997). The 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 A research not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8*, 581-586.
- Grotpeter, J. K., & Crick, N. R. (1996). Relational aggression, overt aggression, and friendship. *Child Development*, *67*, 2328-2338.
- Hong, J. S., & Espelage, D. L. (2012). A review of research on bullying and peer victimization in school: An ecological system analysi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7*, 311-322.
- Kagan, J., Reznick, J. S., & Snidman, N. (1987).

- The psychology and psychology of behavioral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9, 1459-1473.
- Kopp, C. B. (1982).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199-214.
- Leary, M., & Buckley, K. E. (2000). Shyness and the pursuit of social acceptance. In W. R. Crozier (Ed.), *Shyness: Development, Consolidation and Change* (pp. 139-153). London: Routledge.
- Lemerise, E. A. (1997). Patterns of peer acceptance, social status, and social reputation in mixed-age preschool and primary classrooms. *Merrill-Palmer Quarterly*, 43, 199-218.
- Liu, J., Coplan, R. J., Chen, X., Li, D., Ding, X., & Zhou, Y. (2014). Unsociability and shyness in Chinese children: Concurrent and predictive relations with indices of adjustment. *Social Development*, 23, 119-136.
- Lynch, M., & Cicchetti, D. (2002). Links between community violence and the family system: Evidence from children's feelings of relatedness and perceptions of parent behavior. *Family Process*, 41, 519-532.
- Olweus, D. (1994).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1171-1190.
- Osterman, K. F. (2000). Students' need for belonging in the school community.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0, 323-367.
- Pellegrini, A. D., & Bartini, M. (2000). A longitudinal study of bullying, victimization, and peer affiliation during the transition from primary school to middle school.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7, 699-725.
- Pope, A. W., Bierman, K. L. (1999). Predicting adolescent peer problems and antisocial activities: The relative roles of aggression and dysregulatio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5, 335-346.
- Prakash, K., & Coplan, R. J. (2007). Socioemotional characteristics and school adjustment of socially withdrawn children in India.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1, 123-132.
- Prentice, D. A., & Carranza, E. (2002). What women and men should be, shouldn't be, are allowed to be, and don't have to be: The contents of prescriptive gender stereotyp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6, 269-281.
- Rios-Ellis, B., Bellamy, L., & Shoji, J. (2000). An examination of specific types of Iljime within Japanese Schools.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1, 227-241.
- Roberts, B. W., Lejuez, C., Krueger, R. F., Richards, J. M., & Hill, P. L. (2014). What is conscientiousness and how can it be assessed?. *Developmental Psychology*, 50, 1315-1330.
- Rose, A. J., Swenson, L. P., & Waller, E. M. (2004).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and perceived popularity: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concurrent and prospective rel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40, 378-387.
- Rubin, K. H., Bukowski, W., & Parker, J. (2006).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In N. Eisenberg, W. Damon, & R. M. Lern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p. 571-

- 645). New York, NY: Wiley.
- Rubin, K. H., Burgess, K. B., & Coplan, R. J. (2002). Social withdrawal and shyness. In P. K. Smith & C. H. Hart (Eds.), *Blackwell's handbook of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pp. 329-352). London: Blackwell.
- Rubin, K. H., Coplan, R. I., & Bowker, J. C. (2009).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141-171.
- Rubin, K. H., Wojslawowicz, J. C., Rose-Krasnor, L., Booth-LaForce, C., & Burgess, K. B. (2006). The best friendships of shy/withdrawn children: Prevalence, stability, and relationship quali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 139-153.
- Rudman, L. A., & Fairchild, K. (2004). Reactions to counterstereotypic behavior: The role of backlash in cultural stereotype mainten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 157-176.
- Rydell, A. M., Diamantopoulou, S., Thorell, L. B., & Bohlin, G. (2009). Hyperactivity, shyness, and sex: Development and socio-emotional functioning.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7*, 625-648.
- Scarpa, A., Raine, A., Venables, P. H., & Mednick, S. A. (1995). The stability of inhibited/uninhibited temperament from ages 3 to 11 years in Mauritian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3*, 607-618.
- Schwartz, D., Dodge, K. A., Pettit, G. S., & Bates, J. E. (1997). The early socialization of aggressive victims of bullying. *Child Development, 68*, 665-675.
- Shell, M. D., Gazelle, H., & Faldowski, R. A. (2014). Anxious solitude and the middle school transition: A diathesis \times stress model of peer exclusion and victimization trajectories. *Developmental Psychology, 50*, 1569-1583.
- Srabstein, J. C., & Leventhal, B. L. (2010). Prevention of bullying-related morbidity and mortality: A call for public health policies.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88*, 403.
- Wang, J. M., Duong, M., Schwartz, D., Chang, L., & Luo, T. (2014). Interpersonal and personal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peer victimization across middle childhood in Hong Kong.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3*, 1934-1945.
- Wu, D. Y. (1996). Chinese childhood socialization. In M. H. Bond (Ed.), *The handbook of Chinese psychology* (pp. 143-154). Hong Kong: Oxford University Press.
- Xu, Y., Farver, J. M., Chang, L., Zhang, Z., & Yu, L. (2007). Moving away or fitting in?: Understanding shyness in Chinese children. *Merrill-Palmer Quarterly, 53*, 527-556.
- Xu, Y., Farver, J. A. M., & Shin, Y. (2014). Shyness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in South Korean childre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28*, 147-155.
- Xu, Y., Farver, J. A. M., Yu, L., & Zhang, Z. (2009). Three types of shyness in Chinese children and the relation to effortful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 1061.
- Xu, Y., & Kreig, A. (2014). Shyness in Asian American children and the relation to temperament, parents' acculturation, and

- psychosocial functioning.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23*, 333-342.
- Yang, G. S., & McLoyd, V. C. (2015). Do parenting and family characteristics moderate the relation between peer victimization and antisocial behavior? A 5 year longitudinal study. *Social Development, 24*, 748-765.
- Zentner, M., & Mitura, K. (2012). Stepping out of the caveman's shadow: Nations' gender gap predicts degree of sex differentiation in mate preferences. *Psychological Science, 23*, 1176-1185.
- 1차원고접수 : 2015. 10. 13.
수정원고접수 : 2015. 12. 08.
최종게재결정 : 2015. 12. 09.

The Effects of Adolescent Shyness, Self-Regulation, and Gender on Peer Victimization: Tests of a Three-way Interaction

Kyoung Ok Seol

Yena Kyeong

Young Jin Ji

Ewha Womans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aimed to enhance our understanding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victims of bullying. We examined how relationships between shyness, self-regulation, and gender were associated with peer victimization among 305 adolescents. Peer victimization was divided into two facets: overt and relational victimization. Results revealed that a three-way interaction between shyness, self-regulation, and gender was significant on overt victimization. For boys, high levels of shyness and low levels of self-regulation significantly predicted high levels of victimization. For girls, low levels of shyness and self-regulation significantly predicted high levels of victimization. Results showed the main effects of shyness, self-regulation and gender on relational victimization. No three-way interaction between shyness, self-regulation, and gender on relational peer victimization was observed.

Key words : shyness, self-regulation, peer victimization, adolescence, gender